

●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에 관한 사항

4. 원자력관계면허시험 (RI 관련) 일정표 -

시험 분야	공고일	필기시험	필기발표	최종발표
제51회 방사성동위원소 일반면허 시험	3.25	4.25	5.13	6.1
제52회 방사성동위원소 특수 및 방사선 취급 감독자 면허시험	10.7	11.07	12.2	12.21
제17회 핵연료물질 취급자 및 감독자 면허시험				

- ※ 위 시험과 관련하여 공고내용은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 조정될 수도 있음.
- ※ 위 면허시험은 매 시행시마다 시험실시 30일 전까지 시험시행에 관한 원서접수 및 교부사항, 및 응시수수료, 시험일자 및 장소등을 공고함
- ※ 문의처 :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시험관리실 (042-861- 2537, 4049)
과학기술부 방사선안전과 (503-7654, 7655)

● 신문속의 RI뉴스

원자력분야에서도 연구원들의 창업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최근 들어 연구기관 연구원들의 벤처기업 창업이 활발한 가운데 원자력분야에서도 연구원들의 창업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 원자력연구소에서 이미 8개의 벤처기업이 창업되는데 이어 원자력연구소 양자광학팀의 김성호박사와 원자력광기전기술개발팀의 김광석박사가 각각 22일 대덕 원자력연구소 창업보육센터에서 (주)한국광학시스템과 (주)금광레이저의 창업식을 갖는다. 김성호박사의 한국광학시스템은 레이저 및 광응용기술을 기반으로 천체망원경, 산업용실체현미경, 광계측시스템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업체.

현재 국내 광학회사에서 생산하는 광학부품의 가공수준은 세계적 수준이나 광학기기의 시스템 설계기술을 갖춘 업체는 전무한 실정. 그러나 광학시스템은 레이저 및 광응용기술

● 신문속의 RI뉴스

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광학시스템의 설계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광학기기의 수입대체효과는 물론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광학시스템은 구경 4인치급의 전체망원경을 개발, 공공기관등에서 시판하고 있으며 실체현미경과 광계측기도 시제품을 제작한 상태로 곧바로 양산체제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김광석박사가 대표로 있는 금광레이저는 차세대 레이저로 각광받고 있는 과학 및 의료 용인 다이오드 레이저 여기 고체 레이저를 주업종으로 한다.

최근 국내에서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 이 레이저는 소형·경량으로 전원장치의 크기가 극소화되었고 냉각수가 필요 없어 사용하기에 매우 편리하며 수명이 긴 장점이 있다. 이 레이저는 대기관측 및 거리측정, 레이저쇼, 암치료 및 성형시술, 충치제거와 같은 의료분야등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중앙일보 : 98/12/21>

파리근교지역 방사능 오염

파리 근교 지역인 에손의 사클레고원에 위치한 두 연못의 지하수층이 방사능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독립 기관인 방사능연구·정보위원회(Crirad)는 22일 이 지역의 방사능 오염은 근처에 위치한 프랑스 원자력위원회(CEA)가 연못에 방사능 및 화학 액체 배출물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실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고속도로변에 위치한 두 연못의 침전물에서 超우란 원소(플루토늄 238,239, 240, 아메리슘 241)와 기타 방사능물질(탄소 14, 3중수소, 코발트 60, 세슘 137)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중 한 연못의 하수구 배출관 입구는 플루토늄에 의한 방사능 오염도가 대기중 핵실험시 낙진에서 검출되는 방사능 수준보다 5백배나 높은 kg당 1백96 벵크렐로 나타났다. 또한 사클레고원 아래쪽에 위치한 유명 관광지인 폰텐블로의 경우도 모래층이 3중수소와 탄소 14등 방사능물질에 오염됐을 것이라고 Crirad가 추정했다. 이와 관련 CEA측은 Crirad의 발표에 “특별한 내용은 없다”며 “어떠한 방사능 유출이나 주민 건강상의 위험이 없다”고 주장했다. 두 연못에 버려지는 방사능 물질은 3중수소의 경우는 CEA 산하 생물학·약리학연구소에서, 플루토늄 등 기타 물질은 CEA의 방사선연료연구소(LECI) 등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98/12/23 >